

## 개념

### 0. 화자, 청자, 시적 대상

화자: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표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드러났을 시: 1인칭 대명사(나, 내, 나의, 저, 저의...) 찾기!

청자: (시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 표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드러났을 시: 2인칭 대명사(당신, 너, 너희...) 찾기 / 호명하는지 찾기(돈호법)(해여, 주여, 나비야, 친구여...)

+ 만약 청자가 사람이 아니면? -> 의인화된 청자라고 의인법(2-8)으로 볼 수 있음

시적 대상: 시에서 중요히 다뤄지는 대상

-> 시의 제목 /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찾기

바다와 나비(김기림), 향연(박두진)

1. 말하는 방식

1-1. 대화/독백/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문답 포함)	독백(자문자답도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	×	○
청자의 대답	○	×	×

->말하는건 다 알거니 청자의 존재 여부, 청자의 대답 여부를 찾아서 구분

+대화체?

대화체는 대화 뿐 아니라 대화 상황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누가 봐도 대화중이어야 대화체인 것! 말을 건네는 방식을 대화체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1409 A형 '매화사'의 사례를 보면 이 둘이 명확히 차이를 알 수 있다.

...

<제 3수>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피어난 매화! 너로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저녁달을 기다리니  
 아마도 맑은 운치와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오직 너뿐인가 하노라,

...

-안민형, 「매화사」

38번 문제 2번 선지 :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X)

위 시에서 매화라는 청자는 설정되나 대답이 없기에 이것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거, 선지가 틀린걸 통해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체는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시)

아배요 아배요 -청자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배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놀러 놀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쇼.  
 윤사월 보릿고개  
 아배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이믄  
 아배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쇼.

여보게 만술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렬도 응감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청자의 화답 => 대화체

-박목월, 「만술아비의 축문」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말을 하는 형식, 뚜렷한 청자 없음 => 독백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청자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대답 없음 => 말을 건네는 방식

-김수영, 「사랑」

## 2. 여러 가지 표현법

선지의 구성: XX법(적 표현)을 통해 YY를 나타낸다.

-> 판단 시 XX법(적 표현) 과 YY 둘 모두 판단 필요

2-1. 설의법: 의문의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몰라서 묻는게 아님!)

-> 의문형 확인, 몰라서 묻는지 판단

<-> 의문형 진술: 몰라서 묻는 것, 설의적 표현 모두 포함

-> 답의 유무로 설의법이면서 의문형 진술인 것과 설의법이 아닌 의문형 진술을 구분  
효과: 전달하려는 의미 강조

예시)

나 서른다섯 될 때까지

애기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 문맥상 서운했다는건 확정, 답은 정해져 있음 => 설의법

애기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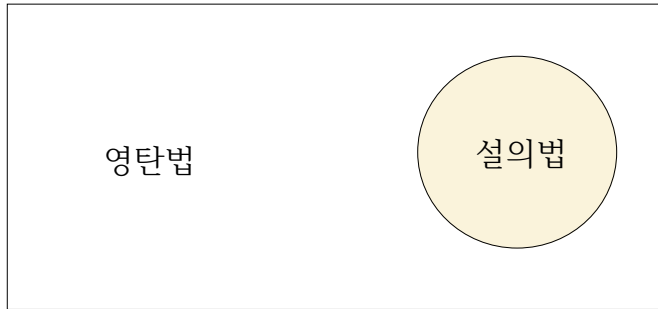
-안도현, 「애기똥풀」

2-2. 영탄법: 감탄의 형식으로 감정을 강조

-> 감탄사(아아, 오오,어이구...), 느낌표, 호명, ~하구나, ~하여라 확인, 감정의 고조 판단

효과: 전달하려는 감정 강조

<-> 설의: 효과의 차이, 형식의 차이 등이 있긴 하나 시가 주관적인 해석인 이상 의문형으로 감탄할수도 있기에 형식적으로 구분하기는 모호함 => 일단 감탄형으로 의문을 가지진 않으니 감탄형은 영탄인지만 확인, 의문형은 선지가 영탄인지/설의인지 물으면 그게 맞나만 확인!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ㄱ  
-출처: 유대종 문학도구정리  
(현 인셉션 문학 개념어)

예시)

님이여, 당신은 백 번(百番)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 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黃金)이 가벼우신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발에 복(福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의 봄바람이여.

-한용훈, 「찬송」

2-3. 반어법: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표현 -> 문맥으로 판단!

효과: 속뜻 강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속뜻: 잊지 못함, 표현: 잊었노라 => 반대됨!

-김소월, 「먼 후일」

2-4 역설법: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켜 깨달음 등을 전달하는 방법

-> 논리적인 모순 파악 ex) 소리없는 아우성

효과: 전달하려는 것 강조

+반어와 역설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둘은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고 이제까지 나온 적도 없으니 그냥 문제가 묻는게 뭔지를 보고 그것만 판단하자!

예시)

어미를 따라 잡힌

어린 게 한마리

큰 게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계장수의 구력을 빠져나와

옆으로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게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 아무도 보지 않는데 찬란함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2-5. 대구, 반복 -> 효과: 강조, 운율 형성, (구조적 안정감)

대구법: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장을 대응하여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수사법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대구가 반복의 하위라 봐도 무방함. 차이는 반복은 거의 비슷한 것이 2  
번 이상 나오기만 하면 되지만 대구는 구조가 바로 붙어서 반복되어야 함.

예시)

산(山)새도 날아와 /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 오지 않는다.

대구(반복)(O): 통사 구조의 반복

인적 끊인 곳, /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박두진, 「도봉」

옛날 옛날 까마득한 먼 옛날

반복법(O), 대구법(X) : 단어(옛날)의 반복,  
유사 문장의 대응 없어서 애는 대구 아님!

≃ 수미상관(첫 연과 끝 연 대응)

유사한 시구가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구조 -> 첫 연, 끝 연 비슷한지 확인

효과: 구조적 안정감, 정서 심화

예시)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유사한 시구(그 속에 ~ 냇을 살게 하자)  
가 처음과 끝 연에 반복

-조치훈, 「마음의 태양」

≃ 점층 / 점강

각각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 약해지는 수사법, 점강은 필자가 기억하기론 나온적이 없고 점층은 좀 나왔으니 점층은 좀 기억해 둡시다.

효과: 구조적 안정감, 정서 심화

예시)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갈수록 눈이 구체화(의미 강해짐)  
(눈 -> 떨어진 눈 -> 마당에 떨어진 눈)

-김수영, 「눈」 일부

큰 것을 잃어 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질부터 살려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피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큰 것 -> 작은 것(의미 약해짐)

-박노해, 「길 잃은 날의 지혜」

2-6. 심상과 이미지, ※공감각

이미지가 심상보다 큰 개념, 심상은 오감, 이미지는 오감 +  $\alpha$ (상승/하강, 색채 ...)

※공감각: 2개 이상의 심상이 쓰이면서 한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어 표현(변화)

공감각 예시)

푸른 종소리 (푸른: 시각, 종소리: 청각 => 시각이 청각으로 전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금으로 타는 태양의: 시각, 즐거운 울림: 청각 => 시각이 청각으로 전이)

효과: 시인이 전달하려는 감각, 이미지 강조

예시)

조국(祖國)을 언제 떠났노.

파초(芭蕉)의 꿈은 가련 하다.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너의 낮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뚱에 밧는다. - 시각적 이미지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마테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네의 그 드리운 치마짜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김동명, 「파초」

## 2-7. 도치법

문장이나 단어를 순서와 다르게 배치하는 수사법 -> 이걸 그냥 봐야해

효과: 강조, 기대감, 운율(일부 경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운 이념의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 순서 바꿈(문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 그는 누구던가”가 맞는 순서)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 2-8.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

-> 인칭대명사로 사물 표현, 사물에 사람처럼 말 걸기 등 확인

예시)

조국(祖國)을 언제 떠났노.

파초(芭蕉)의 꿈은 가련 하다. - 파초가 꿈을? -> 의인법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너의 낮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뚱에 밟는다. - 파초에 발등이? -> 의인법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마테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네의 그 드리운 치마짜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파초가 치마를? -> 의인법

-김동명, 「파초」

### 3. 소설의 구조

이쪽 대목은 문제로 연습하기 보단 대표적인 작품 한번씩 보고 차이를 본인이 느끼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 -> 주요작품 / 해당 개념이 보이는 대목 순으로 구성했다.

#### 3-1.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 작품 내부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 작가와 동일인일수도 / 아닐수도

서술자의 위치(작품의 내 / 외)와 이야기 방식(주관적 / 객관적)에 따라 소설은 4가지 시점으로 나뉜다.

	주관적	객관적
작품 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작품 외	전지적 작가 (고전소설)	3인칭 관찰자 (극 문학)

정의 자체는 위 표와 같으나 작가마다의 스타일 상 하나의 시점만으로 작품이 전개되지 않기도 하고, 객관을 판단하기 애매할 때도 있다. 예시로 뒤에 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격이지만 관찰자인 나의 감정이나 정서가 나와서 이게 객관적인건지 애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아래의 4개 방식으로 분류한다.

1인칭 주인공: 사건 당사자, 자기 일 해설

1인칭 관찰자: 제 3자. 남의 일 구경

전지적 작가 : 작품 외의 인물, 인물의 내역, 인물의 내면 심리, 숨겨진 비사 등 모든 걸 암

3인칭 관찰자: 작품 외의 인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암

아래 4개 작품의 대목은 각 시점의 예시가 되는 문학이다. 차이를 느껴보자

1인칭 주인공

...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죽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하는 까닭이다. 턱살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달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 버린다. 침침한 방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조용한 것은 낮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 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의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달이 여달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웃 굶는 내, 탕고도오랑내, 뜨물내, 비눗내.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문패가 제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일각이 저서 외따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닫힌 일이 없는, 한길이나 마찬가지로 대문인 것이다.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에라도 이 대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달이를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그들 18 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 미달이 위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 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 버렸다.

내 방 미달이 위 한 곁에 칼표 딱지를 넷에다 낸 것만한 내? 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 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속에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에 각기 빌어 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별 안 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어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 마음에 들었다. 방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은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편둥편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푹 일곱째 칸이다. 러키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라?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 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별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별 안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불평이 없다.

...

-이상, 「날개」

작품 내의 주인공(나)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을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 않아,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깐요. 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스물네 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 딸’이라나 봐요.

…

나는 이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앞에 가서 사붓이 절을 하고는 그만 안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그 낯선 아저씨와 큰 외삼촌은 소리 내서 크게 웃더군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오는 나름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사랑에 큰외삼촌이 아저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에, 그 아저씨가아 이제 사랑에 있는대.”

하고 법석을 하니까,

“응, 그래.”

하고, 어머니는 벌써 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와 있나?”

하고 물으니까,

“오늘부터.”

“애구 좋아.”

하고 내가 손뺌을 치니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왜 이리 수선이야.”

“그럼 작은외삼촌은 어디로 가나?”

“외삼촌도 사랑에 계시지.”

“그럼 둘이 있나?”

“응.”

“한 방에 둘이 있어?”

“왜 장지문 닫구 외삼촌은 아랫방에 계시구, 그 아저씨는 윗방에 계시구, 그러지.”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펍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윗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숫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짹짹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서 안마당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작품 내의 인물인 “나” 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나” 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처럼 작품 내의 관찰자가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사건을 “관찰”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

백상군 부부는 하늘이 내려주신 이 외아들을 금지옥엽 애중하여 이름을 선군(仙郡)이라 하고 자를 현중(賢仲)이라고 지었다.

백선군은 자라서 어느덧 장가들 나이에 이르렀다. 부모는 자식에게 적당한 짝을 얻어서 슬하에 두고 살아가는 재미를 보고자 널리 구혼하였으나 알맞은 혼처가 얼른 나타나지 않아 항상 걱정이었다.

이때 봄빛이 따뜻하게 버들가지를 희롱하는 좋은 계절에 선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몸이 피로하여 책상에 기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갑자기 녹의홍상으로 차려입은 아름다운 남자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두 번을 절하고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도련님께서는 저를 모르시나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련님과저와는 천생 연분이라 찾아뵙는 것이옵니다."

남자의 말을 듣고 선군은 크게 놀라며 물었다.

"나는 진세(塵世)의 속객(俗客)이려니와 남자는 천상의 선녀가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시오?"

그러자 남자는 말하였다.

"도련님께서는 원래 천상에서 비를 내리는 선관(仙官)이었는데 어느 날 비를 잘못 내리신 탓에 그 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셨으니 머지않아 저와 더불어 만나뵙을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는, 선녀 장자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선녀는 사라졌되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군이 이상히 여겨 선녀가 사라져간 허공을 향해 바라보는 동안에 잠에서 깨어나니 책상에 기대어 조는 동안에 잠시 꿈이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본 선녀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해서 잠을 깨고난 후에도 그 모습이 눈에 선연하고 맑고 고운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였다.

그 후부터 선군은 꿈속에서 만난 그 남자의 아리따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마침내는 병이 되어 몸까지 쇠약해지기 이르렀다.

형용이 수척하여 변민하는 기색이 역력해진 선군을 보고 그의 부모가 크게 염려하고 그 연유를 물었다.

"너의 병세가 심상치 않거니와 무슨 곡절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별로 걱정될 만한 일은 없사오니 안심하소서."

하고는 서당으로 물러나와 잡념을 잊고자 가만히 누웠다. 그러나 마음은 남자 생각으로 가득 하여지며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 남자가 구름처럼 나타나서 선군의 옆에 앉으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

"도련님께서 저를 생각한 나머지 이처럼 병을 얻었으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하오리까? 제가 도련님을 위로해 드리고자 제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가져 왔사오니, 제 화상을 도련님 침실에 두시고 밤이면 안고 주무시고, 낮에는 벽에 걸어두고 도련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사이다."

선군은 너무나 반가워서 남자의 고운 손을 부여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려고 할 찰나에 그만 남자의 자취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금동자 한 쌍과 남자의 화상이 분명히 옆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선군은 기이하게 여기면서 금동자는 상 위에 올려놓고, 화상은 벽에 걸어두고 밤낮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모두들 구경코자 선군의 집으

로 물려드는 것이었다.

"백선군의 집에는 선녀가 갖다 준 신기한 보배가 있다."

하며, 저마다 비단을 갖다가 그 화상과 금동자 앞에 바치고는 구경도하고 저마다 복을 빌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백선군의 집은 점점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백선군은 오로지 그 남자를 사모하는 일념으로 낮을 잃어 만사에 뜻이 없었는지라 그 정경은 참으로 가련한 것이었다. 점점 악화되는 병세 속에서 선군은 백약이 무효하여 드디어는 자기에 드러 누워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르렀다.

선군의 그러한 딱한 정상을 동정하여 남자도 '선군이 나를 사모한 까닭에 이처럼 병을 얻었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하고는 선군의 꿈에 자주 나타나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도련님께서 저를 잊지 못한 나머지 이처럼 병을 얻었으니 저로서는 이토록 고마울 데가 없어서 다만 감격할 뿐이옵니다. 저와의 연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로, 그 동안 제 대신 시녀 매월이를 보내오니 방수를 정하여 저를 보는 듯이 매월이를 보시고 더불어 심사를 위로 하소서."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선군은 그 꿈을 신기하게 여기고, 남자의 부탁대로 매월이를 시첩으로 삼아 울적한 심회를 얼마간은 풀었다. 하지만 남자를 향한 한 마음의 애정은 여전히 선군을 괴롭혔다.

밤낮으로 남자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는 선군은 창 밖의 새 소리에든 남자의 생각으로 애간장이 굵이굵이 녹는 듯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선군의 괴로운 상사병은 뼈속 깊이 박히고 말았다.

선군의 부모는 병이 갈수록 점점 더 위독해지므로 당황하고 초조하여 갖은 약을 다 쓰고 백가지 문복(問卜)을 하였으나 조금의 차도가 없음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다.

이때 남자가 또 생각하기를, '도련님의 병세가 저와 같이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니 하늘이 정한 연분의 시기가 아직 멀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하고, 선군의 꿈 속에서 현몽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직 만날 시기가 되지 않았습시다만, 도련님께서 그토록 제 생각으로 괴로워 하시니 제 마음도 편하지 못하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면 부디 옥연동(玉淵洞)으로 찾아오사이다."

하고는 역시 홀연히 사라져 버리었다.

잠에서 깨어난 선군은 꿈속에서의 황홀함을 잊지 못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부모님 앞으로 나아갔다.

"요즈음 제 마음이 불안하여 침식이 여의치 못하오니, 경치 좋은 산천과 이름난 절을 두루 유람하여 울적한 심사를 달래보고자 하나이다. 옥연동은 특히 산천의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하오니 그곳에나 수삼 일 다녀오겠나이다."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작품 내의 모든 걸 파악하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때 서술자는 자신의 주관 / 평가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 3인칭 관찰자 시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曾孫女)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 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 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 리 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 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 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쪽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지 조약돌을 내려 다보았다. 물기가 겹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했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쫓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 피었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 오는 것 같았다.

-황순원, 「소나기」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작품 내의 사건을 서술하나. 이 서술자는 모든 걸 알지 못한다. 그저 보이는 것만 서술하는 이런 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 3-2. 서술자의 개입

3인칭 시점의 소설에서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직접 개입)

-> 독자에게 말걸기 /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상

예시)

...

한번 제사하매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청령하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베프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설분하고 또 소송당한 놈이 피차 예물 바치는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여성대호하여 가로되,

"서대쥐 정소를 만나매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천축하고 한출침배 하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굴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황황망조 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노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匕首)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요."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옴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별감은 그 사이 무양하셨느뇨, 나는 총암절벽 한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시위하여 유현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욕하나 승안접사(承顔接詞 : 웃어른을 만나뵈는 일)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지에 왕굴하여 의외청안(淸顔)을 대하니 패자예차(牌子預差)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찌리요."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양정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오소리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 개입!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성화 착래하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요."

-작자 미상, 「서동지전」

06수능에 나온 대목을 굵어온건데 저정도를 가지고 직접 개입이라 볼수 있는가로 수많은 이의의신청이 있어서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답까지 했을 정도의 문제였다. 우리는 저걸 교훈삼아 저정도라도 서술자의 개입이라 볼 수 있다고 공부하자